

〈Brief Report〉

평가적 피드백과 생활사건에 따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최 정 인 이 훈 진[†] 이 준 득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자기애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각 하위 유형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비교하였다. 대학생 345명 중 외현적 자기애 집단, 내현적 자기애 집단, 통제 집단을 선발한 후 일상적인 자존감 수준, 평가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가상 상황에서의 자존감 수준, 일일보고과제를 통해 실생활에서 주요 사건에 따른 자존감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적 피드백 시나리오 상황에서 자기애성향자들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큰 자존감 변화를 보고하였고, 그 정도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더 컸다. 일일보고과제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더 큰 자존감 변화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으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자기애성향자들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이전의 임상적 관찰 및 경험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불안정성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Fax : 02-877-6428 / E-mail : hjlee83@snu.ac.kr

일찍이 Kohut(1971)과 Kernberg(1984)와 같은 정신 역동 이론가들은 자기에성 성격의 핵심적인 특징을 자기에 대한 무의식적 부적절감과 의식적인 우월감의 분리로 보았다. 즉, 이들이 외현적으로 웅대한 자기개념을 보고하지만 표면화된 웅대성의 기저에는 취약한 자기개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찰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 불안정성인데, 이는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이 때와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복을 보이는 경향성을 말한다(Kernis, Lakey, & Heppner, 2008).

자기에성 성격의 자존감 불안정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에에 집중되어 왔는데,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실험 상황에서 과제 수행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질 때 자존감이 크게 저하되고 강한 분노 및 공격성 반응을 보였다(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 Morf, 1998). 또한, 일일보고 과제를 통해 자연 상황에서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부정적 성취 사건이나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큰 자존감 변화를 보였다(Zeigler-Hill, Myers, & Clark, 2010; 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한편, 임상적 문헌들에서는 표면적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과시하는 외현적 자기에와 달리 무의식적인 웅대성을 억압하고 겉으로 이를 드러내지 않는 내현적 자기에에도 주목하였고(Akhtar & Thompson, 1982), 일부 경험적 연구에서도 두 하위 유형의 자기에적 병리가 존재함이 지지되었다(Rathvon & Holmstrom, 1996).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보다 우울하고 쉽게 수치심을 경험하며 자기 확신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Akhtar & Thompson, 1982), 이들이 외현적 유

형보다 외부 평가에 의해 더 심한 자존감의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에서의 자존감 불안정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며, 따라서 두 집단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에성향자들이 평가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가상의 상황과 실생활에서 보이는 자존감 불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외현적 유형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자존감 수준 또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두 자기에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에성향자의 평소 자존감 수준을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평가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상황에서의 자존감 수준을, 일일보고과제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자존감 변화를 측정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이 평가적 피드백에 예민하고, 우울한 특성을 보인다는 임상적 관찰을 고려할 때(Akhtar & Thompson, 1982), 외현적 유형보다 평가적 피드백과 생활사건에 의해 더 큰 자존감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345명(남 197명, 여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04

세(SD=2.65)였고, 남자의 평균 연령은 21.83세(SD=2.94), 여자의 평균 연령은 20.00세(SD=1.74)였다.

측정 도구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III-R 진단준거를 참조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적 성격장애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변환한 한수정(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에 의하면 내적 합치도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khtar와 Thompson(1982)의 이론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 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 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공통 요인 2개는 각각 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이고, 고유 요인 3개는 각각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 요인과 고유 요인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에 의하면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10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고, 요인 분석 결과 단일 요인 구조로 보고되었다(이훈진,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평가적 피드백 상황 시나리오 질문지

평가적 피드백 사건에 따른 자존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Rhodewalt & Morf, 1998)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상황 시나리오는 부정적 피드백 사건 4개와 긍정적 사건 2개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사건에서의 자존감 변화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긍정, 부정의 비교보다는 집단 비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 사건을 다수 포함시켰다. 4개의 부정적 사건은 능력에 관한 피드백 사건 2개와 사회성에 관한 피드백 사건 2개로 구성되고, 2개의 긍정적 사건은 능력에 관한 피드백 사건 1개와 사회성에 관한 피드백 사건 1개로 구성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 3명의 검토를 통해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제시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능력과 관련된 부정적 피드백 사건) “어느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고, 준비빨기에 의해 내가 조장이 되었다. 우리는 발표의 내용을 구성할 이론적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나는 조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관련 분야 저널에 실린 저명한 학자의 논문에서 이론적 모

델을 찾아 왔다. 조모임에서 이 모델에 관해 설명하자, 어떤 조원이 그 모델은 너무 오래 됐으며, 발표한다고 해서 별로 참신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능력과 관련된 긍정적 피드백 사건) “조별 발표가 있는 수업에서 나는 조장으로서 조원들에게 일을 분담하였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실무 인턴경험이 있는 조원이 있어 발표 내용을 심도 있고 수월하게 준비하였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를 담당한 조원이 서투라서 슬라이드가 멋지게 구성되지는 못했다. 발표는 내가 맡았다. 발표가 끝나고 1, 2, 3순위를 매겨 우리가 2등으로 뽑혔는데, 교수님께서 ‘발표자의 전달력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참가자들은 각 시나리오를 읽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의 변형 문항 2개 상에서 보고하였다. 두 문항은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런 일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 처럼 느끼게 만든다.”이다.

일일보고 과제

실생활에서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가 제작한 과제이다. 5일 동안 그 날 있었던 주요 부정적, 긍정적 생활 사건과 사건 당시의 자존감 수준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회상하여 기록한 후, 이메일을 통해 연구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우선, 그 날 기분에 영향을 미친 가장 불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관식으로 서술한 후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를 통해 당시의 자존감 수준을 회상하여 보고했다. 다음으로 일과 중의 가장 유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선행 연구(박세란, 2004)의 집단 구분 방법을 참조하여 345명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점수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내현적 자기에 고유 요인 점수를 근거로 외현적 자기에 집단 33명(남 16명, 여 17명)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 45명(남 28명, 여 17명), 통제 집단 67명(남 36명, 여 31명)을 선발하였다. 집단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기에 집단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점수가 상위 30% 이상인 참가자 가운데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내현적 자기에 고유 요인 점수가 하위 50% 이하인 경우 외현적 자기에 집단으로 선발하였고, 상위 30% 이상인 경우 내현적 자기에 집단으로 선발하였다. 통제 집단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참가자로 선발하였다. 세 집단을 대상으로, 평소 자존감 수준과 시나리오로 주어지는 평가적 피드백 상황에서의 자존감 수준에 대해 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피험자 간 변인은 집단(외현적·내현적 자기에, 통제)이었고, 피험자 내 변인은 피드백 사건 유형이었다. 이어서 세 집단 중 일일보고 과제 참여에 동의한 외현적 자기에 집단 16명(남 7명, 여 9명), 내현적 자기에 집단 17명(남 7명, 여 10명), 통제 집단 15명(남 7명, 여 8명)을 대상으로, 5일 간 유쾌·불쾌 사건에 따른 자존감 수준을 매일 보고하게 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먼저 자존감의 변량 분석 결과, 평소 자존감 점수는 외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 집단, 내

표 1. 외현적 자기에 집단, 내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집단의 평소 자존감, 평가적 피드백 및 생활 사건에 따른 자존감 수준

	외현적 자기에집단 (n=33)	내현적 자기에집단 (n=45)	통제집단 (n=67)	F	Scheffé 검증결과
자존감(RSES)	41.73(5.28)	32.38(5.84)	37.58(5.45)	28.06***	외현>통제>내현
평가적 피드백 상황에 따른 자존감 수준					
부정적 피드백 상황	6.29(1.24)	5.27(1.16)	6.07(1.36)	13.55***	통제=외현>내현
긍정적 피드백 상황	9.08(1.08)	8.89(1.12)	8.12(1.40)	8.55**	외현=내현>통제
두 상황 간 자존감 수준의 차이	2.79(.30)	3.61(.26)	2.05(.22)	19.24***	내현>외현>통제
	외현적 자기에집단 (n=16)	내현적 자기에집단 (n=17)	통제집단 (n=15)	F	
일일보고과제					
불쾌 사건	32.44(5.55)	26.91(6.04)	32.19(7.20)	4.09	
유쾌 사건	42.63(4.01)	40.27(3.71)	42.45(4.48)	1.72	
두 사건 간 자존감 수준의 차이	10.19(5.17)	13.36(6.76)	10.27(5.50)	1.56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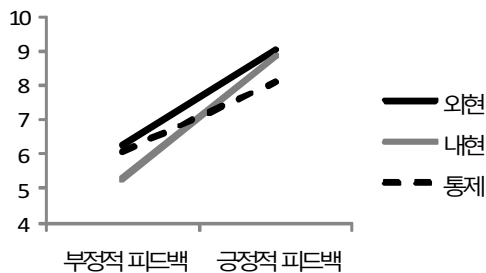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자존감 점수

현적 자기에 집단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136)=28.06, p<.001$. (표 1 참조). 다음으로, 부정적,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가상 상황에서의 자존감 수준을 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과 평가적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34)=19.24, p<.001$, (그림 1

참조). 즉, 집단별로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 변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 수준의 변화가 가장 컸고, 이어서 외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 집단 순이었다, $F(2, 136)=19.24, p<.001$. 피드백의 주효과도 관찰되었는데, 세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피드백 상황에서의 자존감 수준이 긍정적 피드백에서 보다 낮았다, $F(1, 136)=317.63, p<.001$.

다음으로 일일보고과제에서 불쾌 사건과 유쾌 사건에 따른 자존감 수준을 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과 사건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F(2, 45)=1.56, ns$, 집단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F(2, 45)=1.56, ns$. 다만, 사건 유형의 주효과는 관찰되었다, $F(1, 45)=175.81,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성향자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하위 유형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외현적·내현적 자기에 집단 및 통제 집단의 평소 자존감 수준, 평가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자존감 변화, 그리고 실제 일과에서 주요 사건에 의한 자존감 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평소 자존감 수준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이 가장 높고, 통제 집단, 내현적 자기에 집단 순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에성향자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의 자기 평가가 긍정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Kernis & Sun, 1994).

평가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자존감 변화는 내현적 자기에 집단, 외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성향자들이 타인의 칭찬과 관심에 의해 기분이 크게 변화함을 언급한 임상적 관찰(Kohut, 1971)과 일치한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에 따라 가장 큰 자존감의 변화를 보였다.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상에서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점수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통제 집단보다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고 동시에 큰 기복을 보인 결과는 이들이 웅대한 자기상을 억압하고 있으며 자기 가치가 외부 평가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 집단 내에 외현적 유형과는 이질적인 내현적 유형이 존재함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들이 외현적 유형

에 비해 더 많은 자기의심과 좌절에 대한 취약성을 보인다는 임상적 관찰(Akter & Thompson, 1982)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들은 우울이나 자살 사고와도 관련을 보이거나 (Zeigler-Hill, Chadha, & Osterman, 2008), 자기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도 낮을 수 있다(Rose, 2002). 반면, 외현적 자기에 유형은 부정적 피드백 상황에서는 통제 집단과 자존감이 비슷한 수준인 반면, 긍정적 피드백 상황에서 통제 집단보다 큰 자존감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이 실험 상황에서 과제 수행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자기위협으로 지각하고 큰 자존감 저하 및 분노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 (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 Morf, 1998)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실제 과제 수행에 대해 평가적 피드백을 조작한 후 이들의 자존감 변화와 함께 공격성, 분노 또한 관찰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해 가상의 평가적 피드백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자존감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자기보고식의 인지적, 의식적인 평가에서 취약한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과시할 수 있다. 실제로, 불안정한 높은 자존감을 지닌 이들은 자존감 유지를 위해 자기과시나 자기보호적인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Zeigler-Hill et al., 2010), 이들의 성격 특성, 자존감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한 질문지 연구들(Paulhus, 1998; Rose, 2002)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 평가 시 인지적인 보고 이외에 암묵적, 혹은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접근이나 자동

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동요에 대한 측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일보고과제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사건과 긍정적 사건 간 자존감의 변화 정도가 내현적 자기애 집단, 외현적 자기애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나타나 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회상을 통한 측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쾌 및 유쾌 경험을 회상하여 자존감 수준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자기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표본 수가 작거나 측정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표본이 더 크고 측정 기간이 더 길었다면 결과에 나타난 경향성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주관식으로 보고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적 피드백이 있는 상황 외에도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시나리오 질문지 결과에서 보인 자기애 집단의 두드러진 자존감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 불안정성을 자기애 성격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일일 보고과제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도 일상적 사건에 의해 자존감의 큰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피험자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 보고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자기애 집단의 가상적인 시나리오 상황 및 실제 사건에서의 자존감 수준에 대한 자기보고는 실제 자존감 수준 또는 암묵적 자존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박세란 (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년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한수정 (1999).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문학 석사 학위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박사 학위논문.
- Akhtar, S., & Thomp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58-368.
- Kernberg, O. F. (1984).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Psychotherapeutic strateg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rnis, M. H., Lakey, C. E., & Heppner, W. L.

- (2008). Secure versus fragile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verbal defensiveness: Converging findings across three different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76, 477-512.
- Kernis, M. H., & Sun, C.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13.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97-1208.
- Rathvon, N., & Holmstrom, R.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hodewalt, F., Madrian, J. C., & Cheney, S.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75-87.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eigler-Hill, V., Chadha, S., & Osterman, L. (2008). Psychological defense and self-esteem instability: Is defense style associated with unstable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348-364.
- Zeigler-Hill, V., Myers, E. M., & Clark, C. B. (2010). Narcissism and self-esteem reactivity: The role of negative achievement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285-292.

원고접수일 : 2011. 11. 22.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3. 18.

게재결정일 : 2012. 4. 12.

〈Brief Report〉

Effects of Evaluative Feedback and Life Events on Self-esteem Stability of Overt, Covert Narcissists

Jung-In, Choi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Deuk,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In this study, the self-esteem instability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was investigated. Thirty-three overt narcissists, 45 covert narcissists, and 67 controls were selected from 345 college students. The self-esteem scale along with scenario questionnaires was administered to evaluate self-esteem instability under virtual situations where evaluative feedback was given. Lastly, to evaluate self-esteem instability in natural situations, the three groups were asked to send in a diary by e-mail detailing their major life events and self-esteem every night for 5 days. Under the context of virtual evaluative feedback, covert narcissis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elf-esteem than the overt narcissists and both narcissistic group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elf-esteem compared to controls. In natural situations,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arcissist groups showed a tendency of exhibiting unstable self-esteem compared to controls, and the highest instability was present in covert narcissi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linical observation and advanced research. The key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instability